

사설

민족유산·전통사찰의 법적보호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전통사찰이 몰살을 당하고 있다. 불교문화유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사찰주변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각종도로 공공시설 등이 경내까지 접입시켜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사찰경내의 주변을 보호하고 청정한 수도도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발금지규제와 규제법제화해야 한다.

불교계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고속철도 경주 통과나 경마장건설계획에서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불교성지인 경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대단히 높다.

특히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신성성 공약남발과 지방자치시대의 돌입으로 지역발전을 앞세운 대대적 개발정책이 시행되다 마련이다.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등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자연환경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전통사찰의 경관이 허물어지고 있다. 청정해야 할 수도도량이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지원은 물론 일제 식민지사관에 의해 우리민족의 유산인 삼보장재가 과소평가되고 황폐화된 것을 되살려내야 한다.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현장교육도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살아 숨쉬는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 보존·복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 바로세우기'이며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삶의 질을 높여 자랑스런 우리 민족유산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우리 불교계는 사부대중의 삼보장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파괴행위를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불교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교육하는 데에도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은 주로 불교단체의 내부인사권이나 재산관리의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지 취임시 신고의무, 경내지 건조물의 변경 처분 등에 따른 관청의 허가, 자외선 전통사찰의 지정등 불교단체의 자주성을 해치는 법률들로 판 차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특히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의 이념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제는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제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개발정책

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사찰경내의 주변을 보호하고 청정한 수도도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발금지규제와 규제법제화해야 한다.

부정적지원은 물론 일제 식민지사관에 의해 우리민족의 유산인 삼보장재가 과소평가되고 황폐화된 것을 되살려내야 한다.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현장교육도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살아 숨쉬는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 보존·복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 바로세우기'이며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삶의 질을 높여 자랑스런 우리 민족유산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제는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제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개발정책

열린 마당

불교 환경복지

납골제 확산등 장묘제도 개선해야

각 현 <연꽃마을 이사장>

환경과 복지는 둘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은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있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천연만기로 국토의 1%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살아있는 자연의 거주공간인 주거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도 매년 여의도만한 면적이 묘지로 전용,국토가 황폐해 가고 있다.

"불자가 먼저 환경보호운동 실천을"

차 준업 <지역의 친구들 대표>

요즘 환경문제의 관심이 동네 고마들까지 쉽게 외칠 수 있는 흔해 빠진 구호인 셈이다. 이런 사회적인 풍토는 환경오염과 훼손의 심각성이 일상 생활속에 피부로 접하는 수준에 이른 반사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많은 명승사찰 자연환경 주변엔 각종 도로건설, 레저, 위락시설 등이 단골손님처럼 수려한 자연속으로 뻗어오르고 있다.

버리고 훼손하는 생활습관 고쳐야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환경복지 구상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개발은 비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대통령'을 내세우는 개인의 지향과 구상이 신뢰 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위상부터 세우기를 바라면서 불자들의 환경운동 이념을 설정해 본다.

목어

"다른 친구가 내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면 내가 보는 것과 같을 텐데요." 5년간 백혈병과 싸우다 세상을 떠나며 각막을 기증한 김태완군(金泰完·11)은 슬퍼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했다.

불자들은 수시로 말한다. 나와 이웃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그러면서 보시의 공덕을 입버릇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의 장기를 기증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면 선뜻 응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사찰 푸른나무

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허락을 못해 마치 밥먹다 목에 가시 걸린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답을 못주고 있으니 '말'과 '행(行)'의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있다며, 그 걸린 짐작을 안타까워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을 주축으로 여러 재가단체가 연대하여 '정운동'을 전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자들이 '나부터 깨끗하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자'는 이 운동은 개인의 생활규범과 보시행이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되는 '신명개력·사회개력'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월 21일 정부는 환경권행 행정방향을 밝혔다. 녹색환경공동체건설을 위한 5대원칙과 7대 기본시책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과제이다. 이시책에 따라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환경모범국가 될 것이다. 불교계가 실천해야 할 환경복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조형준 <환경운동연합 정책간사>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들 환경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백마디 말보다는 단 한번의 실천을"이라는 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교 생명존중사상 환경문제 해결 열쇠"

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대통령의 선언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따라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이번 선언이 너무 뒤늦고, 화려한 수사와는 별도로 다분히 속된 강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번 선언에서 환경철학적 측면이 빠져 있는 점에 대해, 즉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하는 정신적·윤리적 측면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현대만평



새싹들 자랄 위한 부처님상

청소하는 공덕

청소하는 것에는 다섯가지의 이익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청정할 것, 남의 마음속 열거하는 것, 하늘이 기뻐하는 것, 단정할 업을 짓는 것, 목숨을 머친 뒤에 천상에 나는 것이다. <근본석적체유부 비너야강사>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이사장 김명운

Large advertisement for '한글대장경' (Hangeul Daejanggyeong) featuring a list of 180 volumes, publisher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Includes a list of titles like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일류 문화유산' and '민족의 자존심 국보 팔만대장경'.